

국내 탁자의 용어와 기능 변화

조 숙 경[†]

서일대학 생활가구디자인학과

Changes of Table Terms and Function in Korea

Sook-Kyung Cho[†]

Dep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131-702, Korea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meaning of table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also in the present age was researched, and its changing according to the times was searched as wel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table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in the present age has one thing, "laying something on table" in common from the functional aspect. Whereas the table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had the function of laying and keeping articles or decorations, that of the present age contributes to reading and doing office work of human beings and this exceeds the simple function to keep articles, because it touches parts of the human body, so it combines function of comfort accordingly, not only the function of storage. Second, it was differently presented from the aspect of shape. The tabl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strongly showed the shelf-like shape due to the set-up in layers, while the table of the modern times has the rectangle-like form in one layer. It has been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functional changes. Third, it is different also from the constructive aspect. The tabl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had the construction with one panel on 4 legs in layer upon layer, but the table today has one upper panel on legs supporting it. Namely, the term "table" has been constantly used from the Joseon dynasty period until today, but it has a totally different meaning according to the times on the basis of the changes in function and shape. In the furniture which maintains the function and shape of the square-typed table with 3 or 4 layers and the book table in the Joseon dynasty but is used under the different term in the present times it can be counted that display cupboard or bookshelf. Furthermore, desk and tea table can be regarded as furniture which exactly corresponds with the term "table" used in the present days, and also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re were furniture with such same function as like the writing table and small dining table.

Keywords: table, Joseon, present age

1. 서 론

1.1. 연구 목적

조선시대는 남성과 여성이 생활하는 공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했던 가구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2010년 12월 22일 접수; 2011년 1월 28일 수정; 2011년 4월 14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KRF 2009)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조 숙 경 (kassel95@seoil.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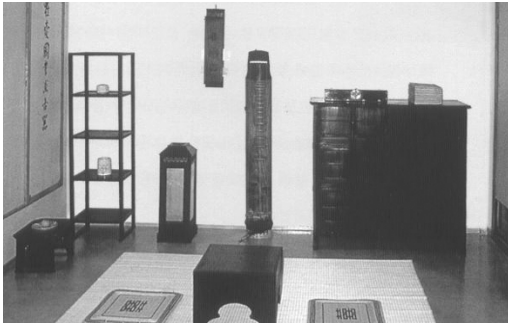


Fig. 1. Arrangement of furniture in reception room (Sarangbang).



Fig. 2. Fig. 2 Arrangement of furniture in main room (Anbang).

는 남녀의 공간이 융합되고, 아파트 문화의 유입으로 공간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가구들도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 사용되었던 가구가 그 기능상실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또는 다른 기능과 융합하면서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가구명칭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주거문화가 시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탁자는 물건을 올려놓기 위하여 네모 또는 원형의 편평한 상판에 다리가 부착된 상의 형태로 만든 가구를 통칭하는 말이다. 또한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 상판과 같은 널빤지를 여러 층으로 올려 만든 가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는 현대에 흔히 사용하는 책상, 테이블, 차탁자 등의 의미가 강한 반면, 두 번째는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사방탁자나 책탁자를 의미한다. 즉, 탁자라는 용어는 물건을 올려놓는다는 공통적인 기능을 갖으면서도 단층이나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시대와 현대에 있어서 탁자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것은 가구의 변화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탁자라고 불리는 가구를 살펴보고, 그 기능과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조선시대의 탁

자와 유사한 현대가구와 현대의 탁자와 유사한 조선시대의 가구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연구방법은 관련 전문서적과 인터넷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조선시대와 현대로 분류한 후 당시의 기능을 조사한다. 즉, 서로 다른 시대에 지칭되고 있는 탁자의 기능과 형태를 비교한다.

2. 조선시대의 탁자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탁자로는 사방탁자, 책탁자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주인이 거주하던 사랑방과 안주인이 생활하는 안방에서 모두 사용했던 가구이다. Fig.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랑방에는 문방생활에 필요한 서안, 사방탁자 그리고 옷을 넣어두는 장과 불을 밝히는 좌등, 벽에 걸린 고비 등이 배치되어있다. 안방에는 장과 농을 비롯하여 서안과 사방탁자, 함, 거울 등이 배치되어 있다(Fig. 2). 사랑방 가구는 선비의 청렴한 분위기를 대변하듯 수수한 반면에 안방가구는 장식이나 칼라 면에서 화려하다. 그러나 양쪽 모두 사용된 탁자는 형태나, 칼라, 재질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사방탁자와 책탁자는 혼동되어 쓰였는데, 남 등(2008)에 의하면 형태에 따라 사방탁자와 장탁자(長卓子)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책탁자, 찬탁자(饌卓子)로 분류하였다. 배(1993)는 사방탁자를 문방구를 진열할 수 있는 가구를 일컬으며 하단에 수납장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책탁자는 골재



Fig. 3. Square-typed table with 5 layers.



Fig. 4. 3-layered table and 5-layered table.

로만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가구관련 책자에서 다른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사방탁자는 사방이 뚫려 있고, 골조기둥과 측널로만 구성된 반면 책탁자는 하단에 문을 달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장의 기능을 더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2.1. 사방탁자

사방탁자는 사방이 뚫려 있음을 의미하며, 서책을 쌓아두는 것 외에 한 두 층의 여백을 살려 도자기 등의 소품으로 장식하기도 하는 실용적 가구이다(박, 1982). 기둥을 중심으로 네 면이 모두 열려 있어 올려두는 물건이 훤히 들여다보이므로 장식품을 진열하는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네 귀퉁이에서 위로 올라오는 기둥에 선반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선반은 3~6개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선반을 잡고 있는 기둥은 휘지 않고 튼튼해야 하므로 당시에 사용되었던 목재로는 참죽나무, 소나무, 배나무가 있다. 선반은 얇기 때문에 터지기 쉬우므로 박달나무가 사용되었으며, 규격은 대개 가로, 세로 400 mm에 높이는 1,600 mm 정도이다.

형태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작고 위로 긴 가구로 방의 모퉁이나 문갑 옆에 놓여져 공간효율성이 뛰어난 가구이다. 또한 단순 명료한 모더니즘 및 미니멀리즘에 가까워 현대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작가들에 의해서 종종 다뤄지는 가구이기도 하다.

2.2. 책탁자

책탁자는 명칭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책을 보관하는 기능이 강하므로 하단에 폐쇄된 수납공간이 만들어진다. 문으로 열기도 하며, 서랍이 같이 장착되기도 한다. 책탁자의 골조도 사방탁자와 마찬가지로 참죽나무, 소나무, 배나무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단의 문짝은 먹감나무의 무늬를 살려 대칭으로 만들거나 오동나무와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대개 가로가 400 mm로 작은 것부터 800 mm까지 있으며, 세로는 400 mm에 높이는 1,800 mm 정도이다. 사방탁자와 비교해 볼 때, 가로와 높이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형태는 사방탁자와 마찬가지로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작아 공간효율성이 뛰어난 가구이다. 또한 박스 형태로 현대에도 잘 어울리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하단에 폐쇄된 공간을 가지는 현대의 장식장과 흡사하다.

3. 현대의 탁자

현대에 ‘탁자’라 불리우는 것은 흔히 사용하는 책상, 테이블, 차탁자 등을 포함한다. 즉 현대에 이르러 물건을 올려놓기 위하여 상 모양으로 만든 가구를 통칭하는 말(네이버국어사전 <http://www.naver.com>)로 그 의미가 변화된 것이다.



Fig. 5. Desk.



Fig. 6. Conference table.



Fig. 7. Side table.

3.1. 책상

책상은 공부나 사무적인 일을 할 때, 관련 책이나 도구를 올려놓는 상을 말하며, 공부방이나 학교 또는 도서관에서 놓여진다. 상판과 다리로 이루어진 가구로 상판 밑에 서랍이 장착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문화의 유입으로 컴퓨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 책상’이 등장하여 책상의 기능을 세분화 하면서 용어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유사한 것으로는 영어로 불리어지는 테이블(table)이 있으며, 주로 사무용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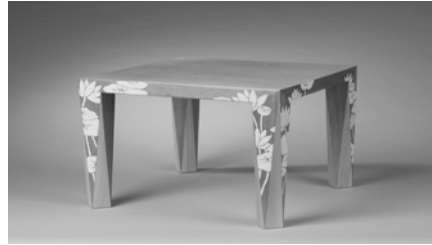


Fig. 8. Tea table without chairs for the sitting on the floor.



Fig. 9. Tea table for stand-up meal.










3.2. 테이블(Table)

테이블은 영어로 회의용 테이블, 작업용 테이블, 티 테이블(tea table), 사이드 테이블(side table), 코너 테이블(coner table) 등이 있다. 회의용은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상으로 서류나 필기도구 등을 올려놓을 수 있으며, 작업용 테이블은 그림이나 도면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 때 관련 도구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이다. 티테이블은 차탁자와 같은 의미이며, 사이드 테이블은 소파의 옆이나 침대 머리맡에 놓여지는 작은 테이블로 협탁이나 보조 탁자로 불리운다. 코너테이블은 공간의 구석 모서리에 놓여지거나 소파를 7자 또는 ㄷ자로 배치할 때, 꺾어지는 코너에 놓여지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난 가구이다.

3.3. 차탁자

차탁자는 차를 마실 때 사용하며, 찻잔을 올려두거나 간단한 메모를 위한 도구를 올려두기도 하는 상이다. 테이블 중 티 테이블과 같은 기능과 의미를 가지며, 차탁자의 종류는 소파 앞에 놓여지는 입식용과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실 때 사용되는 좌식용으로 구분된다. 입식용은 일정한 자리에 위

Table 1. Comparison of table betwee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present times

명칭	조선시대		명칭	현 대	
	이미지	기능		이미지	기능
탁자	 사방탁자	책을 쌓아두거나 도자기 등의 소품을 장식	→		책을 보관
	 책탁자	책을 보관			인형, 도자기 등의 장식품을 진열
서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관련도구를 올려놓는 상	←	 책상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사용하며, 관련도구를 올려놓을 수 있음.
				 테이블	회의를 하거나 상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
소반		술이나 밥을 먹을 때 사용하며, 밥이나 반찬 또는 술이 담긴 그릇을 올려 놓음.		 차탁자	- 차를 마실 때 찻잔을 올려 둠. - 간단한 메모관련 도구를 올려 놓을 수 있음.

치하여 좌식용보다 무겁고 규격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재를 비롯하여 유리, 금속, 대리석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 반면에 좌식용은 조선시대의 소반과 같이 운반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가볍고 규격이 작은 편이어서 대부분 목재이며, 플라스틱도 있다. 입식용 탁자는 움직임이 없어 형태의 변화가 없으나, 좌식용은 이동성이 커 접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많아 구조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이렇듯 현대의 탁자는 물건을 올려두되 단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관을 넘어서 인체의 일부가 가구에 닿아 편리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부가됨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시대의 사방탁자나 책탁자에서 나타나는 장식적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4. 탁자의 기능변화

조선시대의 사방탁자와 책탁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대에 쓰여지고 있는 가구는 장식장 또는 책장을 들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쓰이는 탁자라는 명칭에 부합된 가구는 책상 또는 차탁자이며, 이와 같은 기능을 했던 조선시대의 가구는 서안과 소반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와 현대에 걸쳐 탁자에 관련된 기능과 이미지는 Table 1처럼 정리된다.

조선시대와 현대에 탁자라고 일컬어지는 가구의 공통점으로는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다’라는 일부 기능이다. 그러나 형태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탁자는 여러 층으로 쌓아 위로 올라가는 선반의 의미가 강한 반면 현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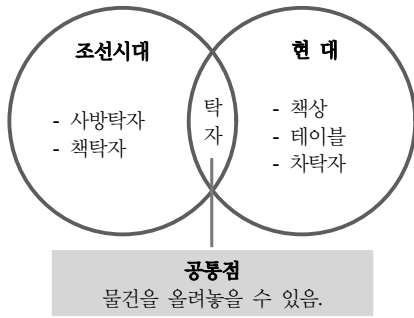


Fig. 10. Common point betwee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present times.

탁자는 한 층으로 되어있어 옆으로 길다는 것이다. 즉, 탁자라는 용어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기능과 형태의 변화에 의하여 전혀 다른 가구를 의미하고 있다.

5. 결 론

조선시대와 현대에 있어서 탁자의 어원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일부 공통점이 있다. 조선시대의 탁자는 물건이나 장식품을 올려두거나 보관하는 기능을 갖는 반면에 현대의 탁자는 책을 읽거나 사무 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체의 일부가 닿아 수납의 효과는 물론 인체를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겸비한다. 즉, 중심이 되는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작은 범위에서의 일부 기능이 일치한다.

둘째, 형태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조선시대의 탁자는 여러 층으로 쌓아 위로 올라가는 선반의 의미가 강한 반면 현대의 탁자는 단 층으로 되어있어 옆으로 길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셋째, 구조면에서도 서로 다르다. 조선시대의 탁자는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널빤지가 층으로 올라가며 조립되어 있는 구조이며, 현대의 탁자는 상판과 그것을 받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탁자라는 용어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기능과 형태의 변화에 의하여 전혀 다른 가구를 의미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사방탁자와 책탁자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명칭으로 현대에 쓰여 지고 있는 가구로는 장식장 또는 책장을 들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쓰이는 탁자라는 명칭에 부합된 가구는 책상 또는 차탁자이며, 이와 같은 기능을 했던 조선시대의 가구로는 서안과 소반이 있다. 이렇듯 가구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는 물론 기능도 달라지고 있고, 부르는 명칭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남경숙 외. 2008. 전통가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60-61, 94쪽.
 박영규, 김동우. 2005. 목철공예. 술출판사, 119, 123, 169, 220쪽.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04쪽.
 배만실. 1993.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23, 125쪽.
 www.naver.com.